

ACE 11 :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민사오며

오늘은 사도 신경 강해의 열한 번째 순서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민사오며** 의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 :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먼저 각 단어의 정의(Definition)를 말씀드리면,

성도는 **saints** 로서 복수이며 **congregation of believers**, 즉 **Local Church** 의 회중을 의미합니다. 교통은 **Koinonia(헬)**, **communion(영)**을 번역한 말로 **fellowship**,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통한다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Local Church 안에서 상호 교제하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Local Church 안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은 Local Church, 가시적 교회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국을 멀리 놔두고 타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Local Church 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국밥을 먹으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주중에는 구역 식구들이 모여 구역 교제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사도 신경에서 말하는 성도간의 교통이 잘 되었습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합니다.

만약 성도의 교통이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것’ 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Leader 는, 성도의 교제의 근원적 본질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교제를 운영해 갈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 먼저 기독교인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무엇이 다른니까?
2. 기독교인들의 교제의 기본 구조에 대해
3.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4. Local Church 와 교제
5. 교제의 활력은 사랑이다.

1. 먼저 기독교인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무엇이 다른니까?

기독교인들이 교제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은 초대 교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때의 크리스찬들의 Local Church 생활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사도행전 2 : 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 :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 :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의 교제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 교인들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없는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교회의 일치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일치가 될 때 좋은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니, 하나님께서 구원 받는 성도를 날마다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 :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인들의 교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 세상의 교제와 다른 점입니다. Local Church 의 교제에 영적 성질이 빠지면 세상 모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성령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2. 기독교인들의 교제의 기본 구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 기독교인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기초한다

요한일서 5 :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독교인의 교제의 기본 구조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
관계로 정립됨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맏형이시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속(Household)이며
예수님의 형제들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 :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 :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2.2 Local Church 와 예수님과 가정과의 관계

에베소서 5 : 31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 :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아담에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 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아담은 부모를 떠나, 남자는 부모를 떠나 --”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교회와
하나를 이루려고 오신 분입니다. 부부가 이룬 가정을 그리스도와 Local church 로 이해합니다.

Local church 의 핵(cell)은 각 가정입니다. 성도들이 속한 각 가정이 모여 Local Church 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과 Local Church 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각 가정이 튼튼하면 튼튼한 Local Church 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각 성도가 속한 가정이다.

성도의 교제는 Local church 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속한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성도간의 교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교제의 모형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님과 Local Church 의 교제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제사권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가정 교회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됩니다. 가장이 은혜로서 가정을 잘 이끌면, 가족 모두가 은혜를 받아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가정을 은혜로 잘 이끈 가정의 Leader 는 교회에서도 좋은 Leader 가 되고, 교회를 잘 이끄는 Leader 는 가정에서도 좋은 Leader 가 됩니다. 교회의 회원이나, 가정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튼튼한 가정이 많은 Local Church 는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가정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보다 앞섭니다.

2.3 Local Church 는 성도들의 어머니

Local Church 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성장을 위해 가정을 주님과 같이, 영적 성장을 위해 Local Church 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점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음과 같이, 영적 성장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 영적 가정인 Local Church 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마 19:5-6)”

교회에서의 좋은 교제는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자양분입니다. 특별히 좋은 평신도 Leader 는 중요합니다.

3. 그러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3.1 성도의 교제의 기원

기독교인의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신적 기원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의 시작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에서 기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에서 시작한 것이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독생자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3.2 하나님의 영광스런 부르심의 목적은 그의 아들과 교제케 하려 함이다.

바울 사도는 말하길,

하나님이 우리를 Local Church 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Local Church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 :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계속되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Local Church 의 교제는 예수님이 빠지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님이 없는 정치 얘기, 도덕 강연으로 시간을 때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예화로 설교를 장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달 두 달만에 한번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 꼭 자기네 교회 목사 자랑을 합니다. 몇 천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할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시골에 있으니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말조차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궁금증이 생겨 신문과 설교 tape 를 구해 들어 봤습니다. 저는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서너 가지의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예수님이란 말은 기도할 때 외에는 듣질 못하였습니다.

설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주어, 예수님과 좋은 교제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성경을 읽고 인생 철학이나 도덕, 정치를 논하면 되겠습니까? 예화로 시간을 때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Local Church 안에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본 받아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Local Church 는 이 목적 외에 다른 아무 목적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길,

베드로후서 1 :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Local Church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의해,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스러운 것과 신령한 것이 이 성도에게 공급됩니다. 우리는 Local Church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자가 됩니다. 현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는 성령님의 중개에 의해 말씀으로 공급됩니다.

베드로후서 1 :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3.3 이 교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중개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중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교제에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와,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있습니다. 전해져야 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partaker)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ocal Church 의 교제에는,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은혜를 잘 전달하면 교회는 살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인간들만 있는 모임으로 변합니다. 교회가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모임만 남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 보다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 :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 :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에서 ‘거하면’ 이 바로 교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활의 제반사에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씀안에 계속 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과 동거하며 교제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모든 제반사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4. Local Church 와 교제

4.1 Local Church 와 교제

Catholic 교회는 주장하기를, **교회가 각 개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 가게 한다는 합니다. 교회는 물론-college of bishop, 사제단-을 의미합니다. 성령보다 교회가 앞섭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주장을 철폐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갖은 사람들** Local Church, **교회의 교제 안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중개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의 중개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선권(Initiative)을 가지시고 각 개인을 Local Church 로 이끄시고, Local Church 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어 Local Church, 가시적 교회와의 사귄에 있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인이 알거나 모르건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맺은 각 개인들이 모인 모임이 Local Church 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Calvin 이 Local Church, 즉 가시적 교회를 Mother of Believer 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Local Church 는 신자에 있어서 영적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신자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Local Church 의 품안에서,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에 있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Local Church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의 기초가 선포되고 형성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교제가 Local Church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개인의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만 그 효력을 갖습니다.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Local Church 의 품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에 있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4.2 교제의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

Local Church 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 바울 사도는 말하길

고린도전서 12 :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 그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조화입니다. harmony 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 : 24 --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고린도전서 12 :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3 Local Church 의 불완전성은 성화(Sanctification)의 기회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가정인 Local Church 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장성한 신자로 만드시지 않고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Local Church 에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Local Church 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Calvin 은 말하길 Local Church 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하여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불신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를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Local Church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자른 점들은 자신의 성화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Local Church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닮아 서로 동화(assimilation)하며, 조화(Harmony)를 이루어,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The Unity Of Church), 이것이 바로 Local Church 의 성장한 교제의 manifestation 이며 implication 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 :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 :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 :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 :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5. 교제의 활력은 사랑이다.

5.1 성찬을 communion, 즉 fellowship 이라고 하는 이유

사람을 초대하여 정찬(Dine)을 함께 나누며, 교제, communion 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Good Will)의 표시이며, 또 앞으로 지속적인 좋은 교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먹는다는 그 자체보다 communion, fellowship, 교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날밤, 제자들을 정찬에 초대하시고 communion 을 하셨습니다(마 26:26-29; 마 14:22-25; 눅 22:15-20; 고전 11:23-26). 이것이 바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Lord Supper, 주의 만찬, communion 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의 정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의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극진한 Agape 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든지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 : 26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6 : 27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 :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든지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대접하시며, Agape 사랑의 교제의 foundation 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communion, fellowship, 교제에 청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살과 피로 마련한 영원한 축복의 교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communion 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있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6 :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사랑이 우리의 교제의 활력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Local Church 의 활력입니다.

요한복음 15 :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 :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은 그 몸을 깨뜨려 주신 사랑입니다.

5.2 교제의 활력인 사랑 : 사랑의 교제는 교회의 활력의 기초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공을 깔아논 명석과 같습니다. 사람은 있어도 연합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 것도 나누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손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서둘러 찾아가는 발이 있으며, 비참하고 곤궁한
것을 보는 눈이 있으며, 한숨과 슬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신자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남의 어려움에 동참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신자를 돌보아 줍니다. 장성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린 신자와 share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열심히 전화 심방도 하고 가정
심방을 가서 위로도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짐을 같이 지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 : 28 --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 :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 신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몰라 준다고, 자기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어린 신자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숙치
못한 신자에게는 남(他)은 없습니다. 언제나 나만 있습니다.

장성한 신자는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 초연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남의 비판과 비난에 대해 예민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 :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4 :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 :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장성한 신자는
하나님이 알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5.3 모든 교제에는 기쁨이 있다.

모든 교제에는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제의 즐거움이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유와 행복입니다.

모든 교제는 자유와 행복을 동시에 증진시켜야 영원한 것이 됩니다. 술중독이나 아편 중독 같은 것이
일시적 행복을 주는 것 같으나, 그 행복에 빠져 들면 들수록 자유를 상실하여 중독이 되어 자신을 망칩니다.
자유와 행복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그 교제는 일시적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본래적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 자유와 행복을 영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 :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 :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에서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교제를 의미하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됨과 함께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점점 죄에 대한 자유스러워 짐과 함께 주님과의 교제의 행복에 들어 가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 :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 :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 아버지의 본성과 일치하게 되어 기쁨, 즉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기쁨이 넘쳐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최대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 될 때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